

# 당신을 중독시키는 디자인의 비밀

‘디자인은 어떻게 우리 행동을 조종하는가’

컴퓨터와 모바일 화면 속 비치는 내용 중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조작된 것일까. 누군가 정성스럽게 남긴 제품 후기는 알고 보니 조작된 광고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SNS 서비스는 우리가 중독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었으며, 아무 의심 없이 눌렀던 클릭이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었을 수 있다. 디자인 트랩은 점점 더 정교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 UX디자인 전문가가 알려주는 ‘디자인 트랩’ 21세기 디자인의 명확한 윤리 영역 제시도

우리를 둘러싼 디자인 트랩의 실체와 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등 여다볼 수 있는 디자인 안내서가 발간됐다. 디자인이 기술과 경험을 창조하는 21세기,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이자 UX디자인 전문가인 윤재영 교수가 펴낸 ‘디자인 트랩’(김영사)이다. 모바일, 구독경제, 메타버스 등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플랫폼과 미래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 행동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좋아요’에 집착하고, 가짜뉴스에 쉽게 낚이고, 넷플릭스, 유튜브를 끊을 수 없는 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 설계된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중 디자인은 실체를 왜곡시키고, 부지불식간에 교묘하게 사용자를 속이고,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듯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을 ‘디자인 트랩’이라 칭한다. ‘디자인 트랩’은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고도로 설계된 마케팅 전략이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교묘한 함정들을 소개하고, 행동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작동 원리와 설계 방식을 설명한다. 또, 거대 IT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디자인 트랩’ 사례를 한 권에 담았다. 지금까지 디자인에서 주로 다룬 심리학 분야는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착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패턴 등으로 부르는 ‘다크패턴 디자인’이 훨씬 광범위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디자인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고 끌어내는 교묘한 함정이다. 저자는 UX디자인, 행동경제학과 진화심리학, 마케팅 등 여러 분야를 종단하며 기업들이 마케팅에 디자인 트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디자인 트랩의 다양한 원리를 분석한다. 디자인 트랩에 대한 시작은 디자인 트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알면 보이고, 보이는 순간 우리는 함정을 간파할 수 있다. ‘좋아요’에는 왜 집착하게 될까.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질 때 더 열심히 일한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또 놓쳤을지 모르는 친구들의 ‘좋아요’나 ‘댓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SNS에 접속한다. SNS를 통해 간헐적으로 받게 되는 도파민 보상은 사용자



‘디자인 트랩’ 삽화

집착하게 만들고 이것이 중독으로 연결된다. 빨간 동그라미 알림은 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까. 알림 기능은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유용한 기능이지만, 기업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더라도 계속 알림을 보내 서비스를 좀더 사용하게 만드는 데 악용한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사용자들에게 ‘중독’과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가임은 간단하지만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꿈수’ 또한 늘고 있다. 이는 체계적으로 디자인된 전략이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해지 단계를 수십 단계로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디자인 트랩은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모든 디자인 트랩을 규제한다는 말은 곧 모든 디자인을 규제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디자인 트랩의 경계선은 모호하다. 그렇기에 저자는 디자인의 본질, 그리고 디자인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디자인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21세기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을 넘어 ‘옳은 디자인’을 고민해야 한다”며 “디자인, 기업, 사용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옳은 디자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가능해질 것이다”고 이야기한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내 마음은 누가 간혹해 주나요=최원진 저자  
11만 팔로워가 사랑한 작가 간혹해 비자의 마음 처방전 ‘내 마음은 누가 간혹해 주나요’가 출간됐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화법과 유머러스한 그림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 ‘비자’가 그림에 글을 더해 독자들을 만난다.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슬피하며 분노하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에게 소홀했던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자 한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며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그 속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정상출판·1만5천원



▲긴 꼬리 연애=이성철 저자  
이성철 시인의 시집 ‘긴 꼬리 연애’가 시작시인선 0430번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오늘날 도시 사회에서 ‘사람’이 어떻게 왜소해지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시집이다. 시집 해설을 쓴 이병철 시인은 ‘땅끝 해남서 나고 자라 국제 무역 도시 인천에 정착해 시를 쓰고 있는 이성철은 자기 생애 전체를 통해 자연으로부터의 분리 및 도시 사회로의 강제적 순치를 겪어왔다’고 말한다. 이는 그 자신 삶의 생생한 고백이자 스스로를 불꽃으로 삼아 캄캄한 소외의 그늘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이기도 하다. /천년의시작·1만원



▲투브=손원평 저자  
화제의 데뷔작 ‘아몬드’로 1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가 손원평의 신작 장편소설 ‘투브’가 출간됐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 없이 사업을 벌이고 주저앉은 일을 반복해온 남자가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을 흡인력으로 그려냈다. 사소한 변화를 통해 인생을 회복해나가는 인물의 눈물겨운 분투기를 담았다. 코로나19 3년차.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진 요즘,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손원평의 응원서는 변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돼 다시금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창비·1만5천원



▲정상은 없다=로이 리처드 그린커 저, 정해영 옮김  
정신보건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 로이 리처드 그린커가 ‘정상은 없다’라는 허구에서 비극한 사람들에게 문화가 어떻게 낙인을 찍어 왔는지를 추적한 책이다. 낙인은 세상 어디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 이 책은 ‘자본주의’, ‘전쟁’, ‘의료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신 질환과 장애에 대한 낙인의 ‘역학’을 탐구한다. ‘생산성’에 따라 인간 가치를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몸들이 배제되고 소외됐는지, 군진정신의학이 정신의학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망가진 뇌’ 모델, 생물학적 모델이 정신 질환과 장애의 낙인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추적한다. /메멘토·3만3천원

# 선입견 깨고 만나는 아름다운 나라, 엘살바도르

양형일 전 특임대사 ‘아름다운 나라의 슬픈 미로’ 출간



3년간 중미의 엘살바도르 특임대사로 주재하며 그곳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체류기 작가 양형일이 펴낸 ‘아름다운 나라의 슬픈 미로’(박복판)다. 저자에게 엘살바도르는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미로에 갇힌 듯 슬퍼 보였다. 이에 저자는 엘살바도르를 ‘아름다운 나라의 슬픈 미로’로 이름 붙이고 자신이 현지에서

보고 만난 자연과 풍경, 사람과 역사는 물론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까지 아우르며 이 책에 담았다. 이와 함께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일들과 특임대사로 겪었던 숨은 이야기 등 우리의 교외 속살을 가감 없이 담아 재미와 정보를 더해주고 있다. 책은 낱것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편견 지어졌던 엘살바도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아르게 쫓는다. 특히나 이를 부채질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도 일침을 가한다. 그러면서 책은 ‘죽음의 도시’, ‘살인율 1위’로

수식되는 엘살바도르가 그처럼 무섭고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순박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곳임을 알려준다. 이 책은 저자가 3년에 걸쳐 엘살바도르를 만난 만큼 여 행기가 전해주는 단편적인 정보와는 다르게 넓고도 깊다. 긴 시간 그곳에서 머물기도 했지만, 저자가 엘살바도르와 그곳의 사람들을 가슴으로 만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가슴으로 함께했기 때문이다. 책의 행간에는 저자의 이런 진심이 녹아들어 있다. 책은 엘살바도르가 침략 당하고부터 이후 독립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그곳의 사람들이 현

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해준다. 침략으로 여러 인종이 뒤섞이고 구분된 제국 계급과 같이 계층이 나뉘어 상층까지도 이어지며, 엘살바도르의 오늘을 파악하게 한다. 이어 책은 대한민국 특임대사로서 저자가 만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엘살바도르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들여다본다. 부농인 커피 농장주와 그의 농장에서 일하는 소작농 가족, 경호원으로 일하는 직원, 엘살바도르의 고위 정치가 등 여러 계층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저자는 이를 세밀한 관찰과 감성으로 녹여내어 엘살바도르와 사람들의 참모습을 전한다. 저자는 “작은 호의에도 순박하게 웃고, 일과 삶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는 엘살바도르 국민의 참모습을 알리고자 했다. 책을 덮고서는 선한 미소로 진정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최명진기자

##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홍삼사랑(6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 씹살한 맛
홍삼성분 다량 함유	▶ 풋내가 없음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느끼한 맛 없음
6년근 1등삼 25지	▶ 깔끔한 맛
국산 홍삼만 사용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http://www.고려홍삼.shop)

